

블록체인과 음악 산업: 미래가치와 전망

□ 고윤화 / 경찰대학교

1. 서론: 인간의 삶과 테크놀로지

몇 달 전쯤 극장에서 10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 〈월E(Wall-E)〉를 봤다. 다시 봐도 여전히 흥미롭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작품은 월E(Wall-E: Waste Allocation Load Lifter - Earth Class)라는 로봇이 주인공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로봇은 지구의 쓰레기를 분리하고 압축시켜 처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작은 청소용 로봇이다.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황폐화된 지구에 홀로 남아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하루 일과인 이 로봇은 흥미롭게도 인간의 ‘감성’을 지녔다. 언제부터인가 쓰레기 더미에서 쓸 만한 물건을 모아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미기 시작한 월E는 어느 날 작은 상자(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집에 가져온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라디

오를 틀어서 음악을 듣는 그는 TV 속 한 연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바라보며 사랑을 꿈꾸기도 한다. 로봇이 인간과 같은 감성을 느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요즘 우리는 4차 산업 시대, 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터넷 시대 개막이후, 정보화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의 고도화에 따른 후속 과정이기도 하며 이전과는 다른 인간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을 내포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4차 산업을 이와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며 혹자는 4차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며 앞서 언급한 기술이 실제 우리의 일상적 삶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언급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아방지용 위치추적 서비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배차간격

과 도착시간을 실시간 반영해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만 생각해봐도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의 기저에 흡수되고 있으나 단지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작년 2017년에는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됐다.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실제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인 이슈가 ‘비트코인’의 악용사례에 집중되다보니 암호화폐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혹은 선입견을 갖기에 충분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을 암시하는 입장표명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신기술의 활용 방안과 미래가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내에도 민간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

으며 초반 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감소하며 금융업 및 다양한 산업군에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숙,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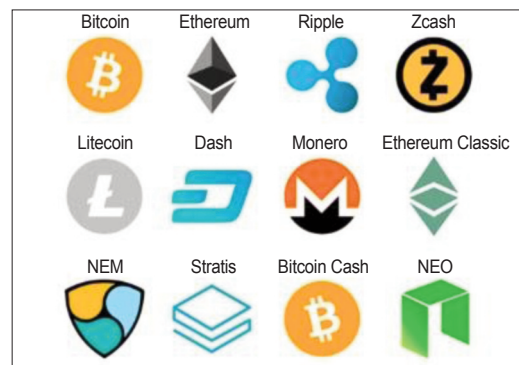
II.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구조와 주요기능

블록체인(Blockchain)은 새로운 하나의 기술이자 시스템이다. 하나의 블록(block)에 연결고리(chain)가 생겨 연결된 기록은 모두 함께 저장되며 그것은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된다. 아래의 <그림 1>을 보면 각각의 블록에는 다양한 정보(기록)가 담겨있고 이것은 연결고리(chain)에 의해 다른 블록들과 연결되며 계속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의 데이터는 모두 함께 저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로 이들의 정보를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P2P 방식을 기반으로 체인과 같은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의 ‘분산된(distributed)’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접근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림 1> 블록체인의 구조

출처 : <https://goo.gl/images/cMNXGq>



<그림 2> 암호화폐의 다양한 형태

출처 : <https://goo.gl/images/IMWJmC>

동시에 누구도 임의로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두 번째 핵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적용 예가 바로 요즘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Bitcoin)이다.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008)을 통해 소개됐으며 2009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¹⁾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종류는 다양한데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더리움(Ethereum·ETH), 라이트코인(Litecoin·LTC), 리플(XRP), 대시(Dash), 모네로(Monero·XMR), 제트캐시(Zcash·ZEC), 쉼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²⁾ 비트코인은 사용자들에 의해 직접 발행이 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채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채굴작업을 통해 약 10분마다 블록이 발행된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 블록에는 사용자의 거래내역과 이전 블록의 함수 값, 난이도 등의 기록이 포함되며 각 블록은 바로 이전 블록의 함수 값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블록은 연결되어 하나의 블록체인을 형성한다. 즉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블록체인은 중앙(정부)시스템의 통제 없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토시의 논문 결론에도 언급되었듯이 ‘이중지불(double-spending)’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각종 투기행위, 거래소사기, 돈세탁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III. 블록체인, 음악과 연결되다

위변조 방지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음악과는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답을 먼저 말하자면 놀랍게도 많은 부분 연결고리를 지닌다. 이 기술의 미래 성공여부 혹은 존폐여부를 떠나 본고에서는 음악과 연결되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술 접목 가능성과 미래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실어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 특히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로 암호화폐가 쓰이는 음악서비스 모델이 상용화되었으며, 아울러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해 음악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체의 학술적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는 현재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음악서비스 관련 주요 기업들의 미래 전략발표와 움직임을 통해 지각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포착된다. 현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국내외 음악산업 동향 및 블록체인을 활용한 음악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포티파이(Spotify): 로열티 문제 해결 위해 블록체인 도입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가 지난해 2017년 4월, 블록체인기술회사 ‘미디어체인 랩(Mediachain Labs)’을 공식 인수했다. 미디어체

1)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실물화 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 ‘가상화폐’라고도 한다. 현재는 둘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2)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 함.

인랩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음악의 창작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자 모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스포티파이는 실제 서비스중인 음악의 작곡, 작사 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로열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음악출판사 협회(NMPA)와 법적분쟁에 휘말려 약 3천만달러(한화 33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번 인수 건은 향후 스포티파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작사, 작곡가에 대한 로열티 지급과 보상체계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The mission of Mediachain Labs has been to build a more connected world for creators. Inspired by the disruptive technology behind Bitcoin, we set out to explore how the next generation of blockchains and open, peer-to-peer

protocols would empower creators to better reach their audiences and ears a living."

– Mediachain Lab Team

미디어체인랩은 창작자들에게 보다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 밝히며, 비트코인 뒤에 존재하는 파괴적 기술(블록체인)에 영감을 받아, 차세대 블록체인과 개방형 P2P(Peer-to-Peer) 프로토콜을 통해 창작자들이 보다 음악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또 이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음원의 로열티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다. 실제 애플이 아이러디오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음원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었던 점, 그 이후 음반사와의 음원 로열티 인하 조정을 위한 시도가 이슈가 됐다. 광고수익으로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의 경우도 약 20억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금



〈그림 3〉
출처: <https://goo.gl/images/rQmM6E>

액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음원 로열티 문제의 핵심은 창작자와 소비자 간에 중간 유통업체가 존재함으로써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저작권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스포티파이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 피드밴드(FeedBands): 대시(dash)³⁾에 기반한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독특한 사례가 있다. 뮤직 큐레이팅과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의 음악서비스 사이트 피드밴드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의 산업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션과 창작자의 수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한 예로 메이커즈와 같은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있다. 최광현, 김준익(2017)⁴⁾에 의하면, 사운드 클라우드(Sound Cloud), 스포티파이(Spotify), 밴드캠프(Band Camp)와 같은 실제 이용자수가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의 음악플랫폼 기업들이 외형과 매출은 성장하였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비용과 콘텐츠 저작권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저작권료 지불에 사용하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피드밴드 서비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티스트는 플랫폼에 음악을 무료로 업로드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자유롭게 음악을 선택해서 업로드한 음악을 듣고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뮤지션은 음반제작에 선정되며 선정된 뮤지션에 대한 펀딩을 받아 음반은 제작된다. 이 음반에는 스트리밍을 통해 미리 들어본 곡



〈그림 4〉 피드밴드(Feedbands) 메인 화면
출처: <https://feedbands.com/>

3) 대시(Dash)는 암호화폐의 일종이며 비트코인과 비교해 익명성이 보장되며 추적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4) 최광현, and 김준익. "콘텐츠 플랫폼의 수익모델 혁신 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2017): 1267-1280.

외에도 미공개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구매자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뮤지션과 관련된 티셔츠나 모자와 같은 상품(goods)을 함께 판매하는 전략도 함께 진행된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월 구독료 4달러를 내면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하고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매달 선정된 앨범을 구매하고 싶다면 25달러, 앨범 및 티셔츠도 함께 구매하려면 4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피드밴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대시(Dash)를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구가 눈에 띈다. (<그림 4>의 우측 중간 부분 문구 참조)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악을 피드밴드에 업로드하고 판매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번다. 수수료는 1센트도 들지 않는다. 즉, 우리는 아티스트에게 수익의 99.9%를 지급하는 것이다.”

3. 딩고뮤직(Dingo Music): 모바일 음악 영상에 최적화된 ‘세로형’ 출시

앞서 언급했던 국내 스타트업 메이커스(makeus.com)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SKT로부터 100억, 네이버로부터 30억을 투자받았기 때문이다. 메이커스가 운영하는 미디어 채널 ‘딩고뮤직’은 일반적인 영상 화면이 ‘가로형’이라는 점에 주목해 모바일의 세로형 화면을 바탕으로 한 ‘세로라이브’를 런칭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2017년 기준으로 유튜브는 9억뷰, 페이스북은 28억 뷰를 넘어서, 음악 생태계 지형변화를 이끌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이처럼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는 자본력이 적으면만큼 아이

디어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SKT의 투자 결정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딩고뮤직(메이크어스)에 투자해 새로운 음악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SK텔레콤은 딩고 뮤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반기 자사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외에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도입한 음악사업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상용화된 부분은 없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SK텔레콤과 딩고뮤직이 함께 선보일 영상모바일 중심의 음악서비스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될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편 메이커스는 네이버의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네이버-KTB 오디오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란 형식을 통해 상생 협력을 구축했다. 드라마, 뷰티, 미용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하는 ‘딩고’와 라이브 위주의 음악콘텐츠를 제공하는 ‘딩고뮤직’ 채널은 타켓층이 10대에서 30대 사이가 큰 폭을 차지하며 이 점은 투자결



<그림 5> 딩고: 세로라이브
출처: <https://goo.gl/images/IQrCuU>



〈그림 6〉 세로라이브 모바일화면
출처: <https://goo.gl/images/1PGBKs>

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톡에 대한항 만한 음악사이트를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들이 감각적인 콘텐츠 노하우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국내 디지털음악 생태계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을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레코드그램(RecordGram): 블록체인 활용한 모바일 레코딩 스튜디오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광고를 시청 후 원하는 음악을 영상으로 보거나 혹은 특정 음악사이트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곡을 듣는다. 한편 최근 창작된 음악은 국가나 장르를 초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 음악사이트를 이용해서는 들을 수 없는 해외 인디 뮤지션이나 콜라보음원은 로열티 문제에 있어서 더욱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게 된다. 더군다나 나라마다 화폐의 단위가 다르다보

니 음악은 이미 글로벌화되었지만 그 프로세스는 글로벌화 되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또한, 뛰어난 실력을 지닌 뮤지션이라도 음악을 녹음하려면 적지않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이미 누군가 작곡한 곡을 쓰고 싶어도 그 절차와 저작권 해결과정이 복잡해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악사이트가 바로 레코드그램(RecordGram)이다. 암호화폐의 하나인 튜토큰(Tune Token)을 통해 화폐를 하나로 통합해 글로벌 음악소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고 레코딩 시스템을 모바일에서 구현해 작곡가들이 올려놓은 곡에 자유롭게 가사를 붙이거나 편곡을 하거나 연주 레코딩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만들어진 영상은 공유도 가능하다. 기존의 레코딩 작업 프로세스(프로듀싱, 로열티를 지급하고 곡을 선정, 스튜디오 녹음 등)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모든 것을 모바일에서 구현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다름 아닌 곡을 만드는 송라이터들과 뮤지션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음원에 대한 로열티의 공정한 분배라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 테크놀로지의 고도화 현상으로 시공간적으로 밀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싸이의 6집 타이틀곡 ‘강남스타일’이 한국말 타이틀과 가사를 지녔음에도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를 통해 2억만뷰를 넘으면서 전세계인이 공감하는 음악콘텐츠가 된 것만 해도 알 수 있다. 음악산업은 결국 음악에 대한 니즈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전한다. 이를 위해 화폐의 통합과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모바일을 활용한 레코딩 시스템 구축은 무척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유저를 확보해야하며 튜 토큰, 암호화폐의



〈그림 7〉 레코드그램 모바일화면
출처: <https://goo.gl/images/h43DXh>

확장과 안정적 기능이 전제되어야 할테지만 말이다. 레코드그램은 2015년 미국에서 프로듀서 출신인 에릭 멘델스ohn(Eric Mendelsohn)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근엔 블랙아이드피스(Black Eyed Peas)의 윌아이엠(Will.i.am) 등이 참여하면서 주요 미디어에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도 유튜브 채널 및 IT관련 소식을 다루는 미디어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⁵⁾

이밖에도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이모젠 힙(Imogen Heap)이 자신의 신곡을 발표해 화제가 됐던 이더리움 기반의 ‘우조뮤직(Ujo Music)’, 국내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저작권 투자가 가능한 옥션 플랫폼 뮤지코인(Musicoin) 등이 있다. 각 서비스의 특색과 활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불필요한 유통단계의

마진을 줄여 ‘창작자와 뮤지션의 수익률을 보다 높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몇몇 작은 신생업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힘들다고 생각하며,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음악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적이라 생각한다.

IV. 소결 및 미래 전망

지금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조와 암호화폐의 기능적 측면이 어떻게 음악 산업과 연결되어지는지 몇몇 특정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왔다. 과

5) 뮤지션이 만든 모바일 스튜디오 ‘레코드그램’과 암호화폐 ‘툰토큰’ (비즈니스, 2018/4/20)

거에는 이러한 동향이나 사례들을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로써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미국 플랫폼 서비스와 한국의 업체가 함께 협력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소개한 딩고뮤직 서비스의 경우도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국내 서비스로 한정짓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국내/국외로 분류하는 가시적 기준보다는 블록체인의 실제적 활용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적 기능과 프로세스, 음악산업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의 연구팀이 작성한 Music on the Blockchain 연구보고서(2016)에 의하면, 여전히 블록체인을 잘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반대할 것인지 다른 두 견해의 논박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마치 흑백논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the debate between ‘for’ and ‘against’ camps has at times seemed black and white), 현재 미디어를 포함한 특히 음악 관련 산업은 이미 이 기술의 다양성(diversity)에 많은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⁶⁾ 이 연구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술이 음악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첫 번째, 음악저작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로열티 지급의 공정성과 빠른 이행성, 셋째는, 중앙시스템이 아닌 개개인의 네트워크 밸류 체인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등이다.

필자는 현재 국내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블록체

인 시스템의 기술적 효용 보다는 비트코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마커스 오데어(Marcus O'Dair)⁷⁾가 제시한 관점은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생산품(product)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이다. 이미 각종 산업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예를 포함해 실시간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추세다. 필자는 ‘음악을 듣고 TV를 감상하며 인간의 감성을 키워나가는 로봇, 월E가 실제로도 구현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그것은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바로 ‘오늘’과 ‘내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허무맹랑한 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끊임 없이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미래 방향성은 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하며, 실제 그렇지 않은 노력은 역사 속에 쉽게 사라져 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 산업은 디지털화로 인해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음반 산업의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하며 디지털화를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거스를 수 없듯이 기술의 발전도 퇴보할 수는 없다. 국내 콘텐츠, 음악 산업 분야는 물론, 이와 관련한 학계에서도 기업과 함께 공동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노력은 물론 창작자와 뮤지션, 소비자 모두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음악생태계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6) O'Dair, Marcus, et al. "Music on the blockchain." (2016). 재인용.

7) Marcus O'Dair, Associate Professor in Popular Music, Middlesex University, UK

참고문헌

- [1] O'Dair, Marcus, et al. "Music on the blockchain." (2016).
- [2] Nakamoto,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 [3] Crosby, Michael, et al. "Blockchain technology: Beyond bitcoin." Applied Innovation 2 (2016): 6-10.
- [4] Silver, J. "Blockchain or the chaingang?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hype: The music industry and blockchain technologies." (2016).
- [5] 최광현, and 김준익. "콘텐츠 플랫폼의 수익모델 혁신 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2017): 1267-1280.
- [6] 김정숙.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전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2018): 324-332.
- [7] 박서기. "[SPECIAL REPORT]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신기원 열까." N 콘텐츠 3 (2017): 52-55.

필자소개



고 윤 화

- 서울대학교 작곡과 이론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네오위즈인터넷 음악서비스 벅스 콘텐츠 제작/기획
- 현재 : 송실사이버대 연예예술경영학과 객원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한국대중음악학회(KASPM) 연구이사 및 연구윤리위원
(주)크리에이티브마스 신규사업팀 뮤직파트 자문
- 주관심분야 : 일상음악, 음악산업, 디지털 콘텐츠, 소비행태